

자 기 소 개 서

■ 성장과정

저는 어린 시절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여러 지역으로 자주 이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기존의 인연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체득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항상 인간관계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앞으로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훗날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기준을 지키며 살아온 태도는 앞으로의 직무수행에서도 큰 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번 상황이 달라지는 승선 생활에서, 저는 유연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묵묵하게 맡은 바 업무를 해내고 싶습니다.

■ 지원동기

동지해운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실습 당시 존경하던 기관장님께서 동지해운 출신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현대, SK, 한진, 대한 등 대형 선사들이 KOGAS LNG 도입 사업을 주도하며 국내 액화가스 운송의 선두 주자라 생각했으나, 기관장님께서 국내에서 최초로 액화가스를 운송한 곳이 바로 동지해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LNG선 운항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액화 화물 운송의 역사와 기술이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지해운에서 배우고 경험을 쌓아 패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다방면에서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GLOBAL LNG STANDARD를 동지해운에서 직접 체득하고 싶습니다.

■ 성격의 장단점

저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습니다.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고민하고, 그 결과, 신중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참을성입니다. 삶에서 힘든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그런데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 결국 큰 기회가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이런 성향이 단점으로 작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중해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적도 있었고, 고지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에만 매몰되지 않기 위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고,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려 합니다. 실습 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한 제 한 가지 목표는 선내 분위기에 잘 녹아들고 본선 선원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만큼은 확실하게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앞으로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승선할 것입니다.

■ 입사 후 포부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배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후배들에게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시니어 사관이 되어 후배 사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는 사관이 되기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명감과 책임감,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사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맡은 일을 완벽히 수행하고, “이 사람과는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인상을 주는 해기사가 되는 것, 그 과정과 성취를 동지해운에서 함께 이뤄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훗날 기회가 오면 승선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지해운의 육상근무를 통해 다방면으로 회사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성적이지만 3등항해사로 근무할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지원자 : 이 상 민

(인)